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順希

2006年 12月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금을 사용하여 복식에 장식하는 기법으로는 금가루 혹은 금박을 직접 직물 표면에 표현하는 인금법과 금사로 화려하게 문양을 넣어 표현하는 직금법, 금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자수하는 금사자수법이 있다.

연구방법은 금장식기법의 유형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으로 분류하고 실증적 유물자료 163점을 바탕으로 각 기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고대 사회로부터 화려함을 상징해 온 금장식에 대한 재인식과 현대복식 디자인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기법을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으로 분류하였고 각 장식기법의 유형·시기, 문양, 용도, 직물특성 및 내적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금은 금가루 및 매우 얇은 금박을 접착제와 함께 사용하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금가루를 사용하는 니금법과 살금법 그리고 금박을 사용하는 첩금법이 있다. 직금은 기본 조직을 이루는 경·위사 외에 별도로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한 중조직 직물을 말한다. 제직 방법에 따라 금사가 직물 폭 전체에 사용되어 문양을 표현하는 위중조직기법과 금사를 무늬부분에만 사용하여 제직하는 부분 위중조직기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과 금사와 색사를 모두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금이 가진 비실용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견고하게 제직에 의해 장식하는 기술이었다. 금사자수는 직물을 제직한 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장식한 기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경우이며 이것은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혹은 문양의 대부분을 표현하고 금사 중간에 색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금사징금수법과 문양의 내부에는 새틴자수법으로 채우고 윤곽선 부분에만 금사를 사용한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이 있다.

두 번째, 금장식기법의 특성 중 유형·시기별 출현율은 직금법(35.58%)이 가장 높으며, 금사자수법(34.97%), 인금법(29.45%)의 순서이다. 15~16세기에는 직금의 비중이 95.00%로 월등하게 높지만 이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금사자수법과 인금법의 비중은 15~16세기에는 매우 낮으나 후반기로 갈

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15~16세기의 유물은 모두 출토복식자료이며 19~20세기 자료의 대부분이 소장자료이기 때문에 출토복식은 소장자료에 비해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 유물에 나타난 문양은 한 가지 문양만 사용된 단독형 보다 2~3가지의 다른 문양들이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이들 모두 동물문양과 자연문양이 조합된 예가 많았다.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모두에서 단독형의 비중(26.38%)보다 복합형의 비중(73.62%)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단독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금을 의복에 장식할 수 있는 신분은 귀한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또한 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금장식기법은 궁중·평상예복 등의 의복에 사용된 경우(33.7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장신구(28.84%), 의복소품(15.95%), 불교용품(12.27%), 생활소품(9.20%) 등의 순서이다. 인금법은 궁중예복(35.42%)과 장신구(54.17%)에 많이 사용되었고, 직금법은 궁중예복(28.58%)과 평상예복(32.14%)에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불교용품(35.71%)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금사자수법은 의복소품(40.35%), 장신구(33.33%), 생활소품(26.32%)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궁중예복 및 평상예복인 의복류에는 전혀 금사자수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금장식기법은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경우(5.17%)보다는 깃, 섶, 끝둥, 곁마기, 선단 등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경우(94.83%)가 월등하게 많았다.

다섯 번째, 금장식기법을 사용한 직물 중 금사자수법을 사용한 모직물 5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직물이다. 이 중에서도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은 사(紗)가 41.67%로 가장 많았으며,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은 직금단(織金緞)이 98.27%로 월등하게 많았고,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은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태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인 단(緞)이 73.68%로 월등하게 많았다.

마지막으로 금장식기법은 신분과 부의 상징성, 장식성, 음양사상성과 같은 내적특성을 가진다. 즉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거나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주로 상류계층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심미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장식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식에 금을 사용하여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장식함으로써 강한 개성과 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장식기법 중 인금법의 경우 음과 양의 색상의 조화로 이루어져 음양사상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i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내용	2
II. 금장식기법의 유형	3
1. 인금법	4
1) 니금법(泥金法)·살금법(撒金法)	5
2) 첩금법(貼金法)	6
2. 직금(織金)법	8
1) 위중조직법	9
2) 부분 위중조직법	11
3. 금사자수법	14
1) 금사징금수법	14
2)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	16
III. 금장식기법에 나타난 특성	18
1. 유형·시기 특성	20
2. 문양 특성	23
3. 용도 특성	32
4. 직물 특성	44
5. 내적 특성	50
IV. 결론	52

참고문헌 54

ABSTRACT 58



표 목 차

<표 1> 인금에 관한 국내 문헌기록	4
<표 2> 직금의 유형별 발달 시기	8
<표 3>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유물의 내역	18
<표 4> 장식기법의 유형·시기별 출현율	20
<표 5> 문양의 유형비	24
<표 6>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용도별 출현율	33
<표 7>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44



그림 목차

<그림 1> 금장식기법의 유형분류	3
<그림 2> 금가루 사용한 문라	5
<그림 3> 금가루 사용한 문라조직	5
<그림 4> 금박을 사용한 문라	6
<그림 5> 금박을 사용한 문라조직	6
<그림 6> 인금법이 사용된 예	7
<그림 7> 직금능	9
<그림 8> 직금능 뒷면	9
<그림 9> 직금능 조직	9
<그림 10> 금단	10
<그림 11> 금단 조직 확대도	10
<그림 12> 금단 뒷면	10
<그림 13> 장화사(통경회위기법)	11
<그림 14> 장화사 조직	11
<그림 15> 직금 장화단	12
<그림 16> 직금 장화단 뒷면	12
<그림 17> 직금법이 사용된 예	13
<그림 18> 정금수침범상도	15
<그림 19> 기린흉배	15
<그림 20> 금사징금수법의 예	15
<그림 21> 귀주머니	15
<그림 22> 압금채수의 예	16
<그림 23> 바늘꽃이	16
<그림 2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예	17
<그림 25> 직물의 출처별 유형비	19
<그림 26> 시기별 유형비	19
<그림 27> 시기별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21
<그림 28> 직금법의 유형별 출현율	22
<그림 29> 금사자수법의 유형비	23
<그림 30> 인금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25

<그림 31> 직금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25
<그림 32> 금사자수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25
<그림 33> 인금법이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26
<그림 34> 인금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	27
<그림 35> 직금법으로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28
<그림 36> 직금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	29
<그림 37>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30
<그림 38> 금사자수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	31
<그림 39>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용도별 출현율	33
<그림 40> 인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34
<그림 41> 인금법이 사용된 예	35
<그림 42> 직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36
<그림 43> 직금법이 사용된 예	37
<그림 4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38
<그림 45>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예	39
<그림 46> 장식기법별 용도별 출현율	40
<그림 47> 의복에 금장식이 사용된 경우 (부분:전체의 유형별 출현율)	41
<그림 48>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42
<그림 49>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	43
<그림 50>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45
<그림 51> 인금법이 사(紗)직물에 사용된 예	46
<그림 52>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47
<그림 53> 직금법이 사용된 예	47
<그림 5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48
<그림 55> 금사자수법이 단(緞)직물에 사용된 예	4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화려한 광채를 가진 금은 예로부터 암흑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광명을 뜻하며 재력과 권력을 상징해 왔다. 이것은 또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며 살림살이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동·서양의 유목민족에게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재화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이 가진 각종 금 장신구에 시대의 생활감각 및 예술 감각을 표현해 왔다(김원용, 1991).

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금관총, 금령총 등 왕실의 무덤에 금의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으며, 관모를 비롯하여 관식,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신, 허리띠 등 최고의 권력층인 왕실에서 사용한 장신구에 금으로 장식한 예가 많다. 이러한 금 장신구는 세금세공, 영락식, 소원배식, 도금, 첩금(이경자, 1983)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정교하게 장식되어 지배층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하며 신분이나 지위가 다름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해 왔다.

그리고 복식에도 신분표시 및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복식에 금을 사용하거나 규제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 금제조에 나타난다(삼국사기). 그러므로 신라 복식에 이미 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우리나라 궁중왕실에서는 왕가의 권위를 표현하고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 및 문양으로 의복에 금을 장식하였다.

또한 금을 이용하여 표현한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문양은 복식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고 신분 및 부를 상징할 수 있으며 현대복식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을 사용하여 복식에 장식하는 기법으로는 금가루 혹은 금박을 직접 직물 표면에 표현하는 인금법과 금사로 화려하게 문양을 넣어 표현하는 직금법, 다양한 문양으로 자수하는 금사자수 기법이 있다. 이러한 금장식 기법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김혜경(1976)의 ‘朝鮮王朝時代 金箔에 관한 研究’, 김정숙(2003)의 ‘조선시대 전통복식에 사용된 직금직물의 문양 재현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를 한정하여 직금 직물의 문헌적 연구와 실제 유물을 통한 직물의 짜임을 연구·분석하고 현대 직기를 이용하여 직물을 재현하였다. 그 외 최희정(1999)의 ‘조선시대 흥배 문양을 응용하여 자수 표현 연구’와 선수산

(1979)의 ‘조선시대 복식 문양(무늬) 연구 : 자수와 금박문양을 중심으로’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자수와 금박문양을 정의내리고 비교·분석 하였다.

그러나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장식 기법의 유형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으로 분류하고 실증적 유물자료 163점을 바탕으로 각 기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대 사회로부터 화려함을 상징해 온 금장식에 대한 재인식과 현대복식 디자인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과 실증 고찰을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고려사>, 기타 조선시대 금장식기법 관련 논문 및 보고서, 중국문헌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사서 고찰을 통해 금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 고찰	<과평윤씨>, <청주한씨>, <안동권씨>, <장기정씨> 등의 출토유물 자료와 <통도사>, <석주선기념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등의 소장유물 자료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유물 163점을 중심으로 장식기법의 유형, 문양, 용도, 직물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을 밝히고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금을 사용한 장식기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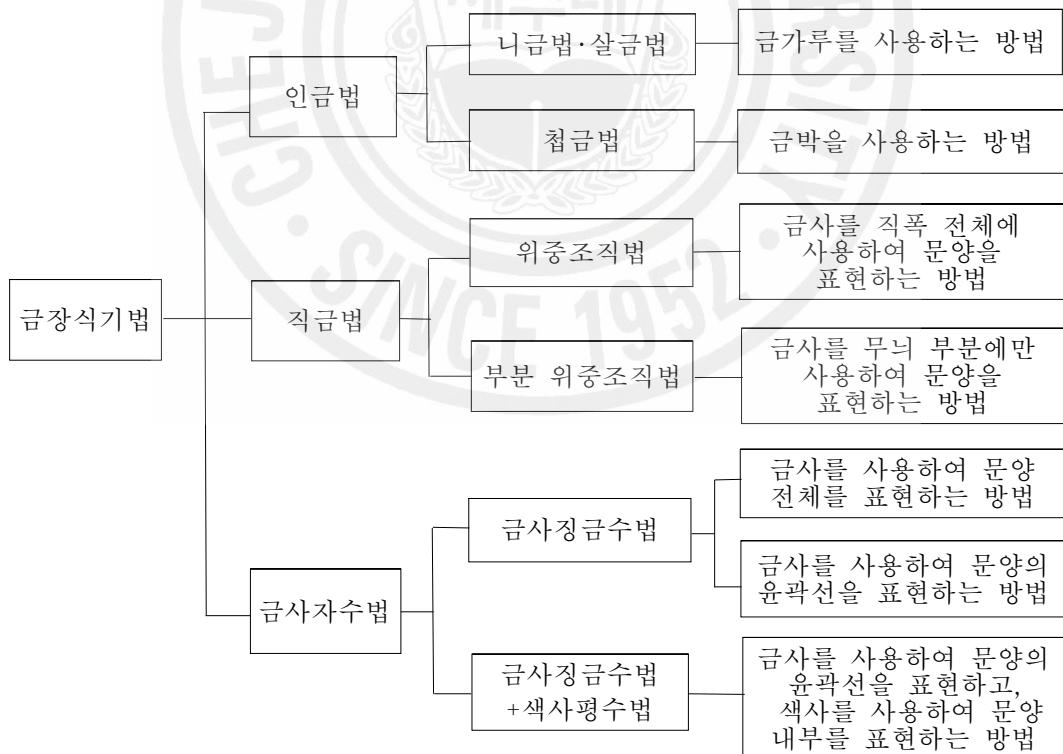
III 장에서는 금장식기법에 나타난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의 특성을 실증 자료를 중심으로 유형·시기, 문양, 용도, 직물, 내적특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고찰하였다.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II. 금장식기법의 유형

조선시대는 유교의 禮가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예는 곧 법이었고 인간 생활의 규범이었다. 따라서 복식도 예를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래서 복식을 통해 왕과 신하,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의 신분 차이를 분명하게 하였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식의 색상과 장식 문양 및 장식방법 등을 다르게 하였다.

자연물 중에서 황금보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귀한 금을 그 자체로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금은 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불교의 수많은 불상이나 이슬람교의 경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종교적 믿음을 견고하게 하거나 신분 및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금은 이런 이유에서 복식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에는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등의 유형이 있으며 이것을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금장식기법의 유형분류

1. 인금법

인금은 금가루 및 매우 얇은 금박을 접착제와 함께 사용하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공예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중 비교적 초보 단계의 간단한 방법이다.

<표 1>은 인금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흥덕왕 복식 금제에 오두품 및 육두품 여자의 의복에 금·은니를 금한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인금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의복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은니는 고려시대에서도 발전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 은은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므로 수출을 금하고 사치품목으로 사용을 억제하자는 기록이 대부분이다(高漢玉, 1986).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직금제직기술 및 금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직금의 대용품으로도 제작되었다.

<표 1> 인금에 관한 국내 문헌기록

시대	내용	출처
통일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두품, 5두품 여자의袴에 금니를 금함. 6두품, 5두품 여자의 단의, 배당, 표에 금·은니를 금함. 	삼국사기 흥덕왕 복식금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영공장 중 장야서에 금박장과 은박장이 있음. 	고려사 권 124 열전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금홍라, 쇠금홍매화라 등을 송나라에 보냈음. 쇠금용봉문능, 쇠금용봉문라 등에 관한 기록이 있음. 	고려사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박장이의 견습생을 두어 결원이 생기면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함. 	조선왕조실록 세종7년 4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박, 은박 등을 진상하기 위해 사들임.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6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박 5만장을 왕에게 바침. 	조선왕조실록 문종 즉위년 8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박장이 중국에서 연금술을 배워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금은이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 중 금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음. 	조선왕조실록 성종 24년 4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금 1냥 중 등을 궁궐에 들이도록 함. 	조선왕조실록 연산 6년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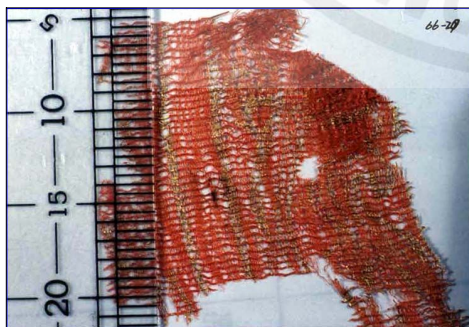
인금은 금가루를 사용하는 방법과 금박을 사용하는 방법(심연옥, 2002)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니금법(泥金法) · 살금법(撒金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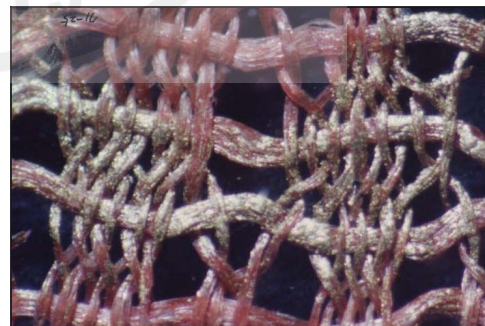
니금법(泥金法)·살금법(撒金法)은 모두 금가루를 사용하여 장식한 방법이다. 이 중에서 니금법(泥金法)은 매우 고운 금가루나 은가루를 접착제와 잘 반죽한 후 미리 도안에 따라 조각해 놓은 목각판에다 이것을 솔로 칠해서 직물에 찍어 무늬나 윤곽을 만든 다음, 무늬 내부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소금법, 쇠금법(鎊金法)이라고도 한다. 이 기법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었다.

살금법(撒金法)은 형지(型紙)나 목각판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직물에 도포한 후 금가루를 뿌리면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만 금가루가 붙게 되는데 붙인 후 잘 눌러 금가루를 직물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 문양의 선이 비교적 거칠며 번쩍번쩍하는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금색은 비교적 짙은 편이다(高漢玉, 1986).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된 기법으로 고려시대 금박 직물 유물 중 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하얀색의 접착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살금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3>은 제작법이 비교적 복잡한 라 직물에 금가루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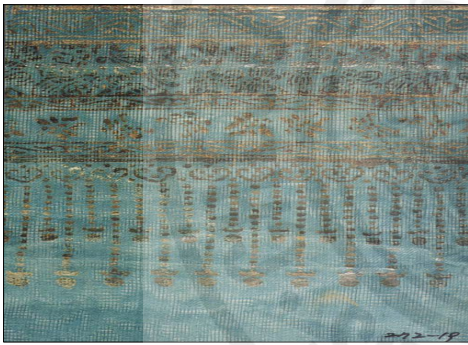
<그림 2> 금가루를 사용한 문라 (수덕사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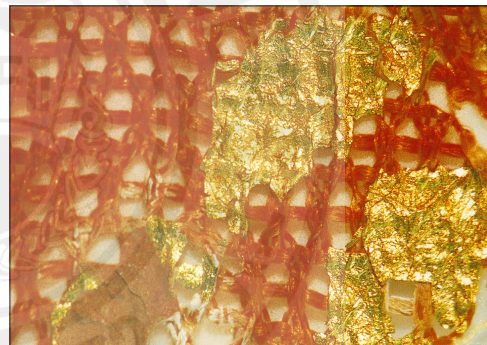
<그림 3> 금가루를 사용한 문라조직 (수덕사 소장품)

2) 첩금법(貼金法)

첩금법(貼金法)은 금박을 사용하여 장식한 방법이다. 금을 얇은 금박으로 만들어 직물에 붙이는 방법으로 먼저 문양이 조각된 판으로 접착제를 도장 찍듯이 직물에다 찍어 도포한 뒤 접착제가 마르기 전 그 위에 금박을 올리고 잘 눌러 붙인다. 금박이 잘 접착된 후 금을 털어내면 접착제가 붙어 있지 않았던 부분의 금박이 탈락되고 직물에는 금문양이 남게 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된 인금법으로서 관모, 장신구, 과대류 등의 금속소재에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수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제작된 국내 현존하는 최초의 금박 복식유물로서는 고려시대의 문수사 소장직물과 아미타불 복장직물이 있으며(그림 4, 5) 현존하는 금박 복식유물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다.



<그림 4> 금박을 사용한 문라
(문수사 소장품)



<그림 5> 금박을 사용한 문라조직
(한국직물오천년, p. 311)

<그림 6>은 조선시대 인금법이 복식에 사용된 예이다. ①은 덕온공주의 두루 색 저고리이며 표면 전체에 壽·福字가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②는 의왕비의 초록 당의이며 깃 부분에는 박쥐문, 양쪽 선단과 앞·뒷자락에는 봉황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③은 조바위이며 표면 전체에 길상을 의미하는 길상어와 화문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④의 당의는 양쪽 선단과 앞·뒷자락에는 壽·福字와 화문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나머지 표면 전체에는 壽·福字와 박쥐문이 장식되어 있다. ⑤는 상류층 남아가 썼던 호건

으로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길상어가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⑥은 삼회장저고리이며 깃, 쏘, 곁마기에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p>① 삼회장저고리 (한국복식명품, p. 140)</p>	<p>② 당의 (한국복식명품, p. 205)</p>
	
<p>③ 조바위 (名選 下, p. 41)</p>	<p>④ 당의 (우리옷이천년, p. 97)</p>
	
<p>⑤ 호건 (名選 中, p. 38)</p>	<p>⑥ 삼회장저고리 (名選 下, p. 139)</p>

<그림 6> 인금법이 사용된 예

2. 직금(織金)법

직금은 기본 조직을 이루는 경·위사 외에 별도의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한 중조직 직물의 통칭이며 본 연구에서는 금사와 함께 색사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작방법에 따라 직물 폭 전체 투입되는 위중조직법과 금사가 무늬 부분에만 투입되는 부분 위중조직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금사만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와 금사와 색사를 모두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견뢰도가 낮은 인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에 의해 장식하는 직금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직금은 직금법(織金錦), 금사금(金絲錦), 납석실(納石失), 납적사(納赤思), 송식금(宋式錦), 편지금(遍地金), 고금(庫金)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표 2>는 직금의 유형별 발달 시기를 살펴본 것이며 한국, 중국 모두 금사가 무늬부분에만 투입되는 장화기법에서 금사가 직폭 전체 투입되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직금의 유형별 발달 시기(趙豐, 1999)

시대 및 연대 직금의 유형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당	요	금	원	명	청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금사가 무늬 부분에만 투입되는 장화기법(brocade)	●	●	●	●	●	●	●	●	●	●	●	●
금사가 직폭 전체에 투입되는 직금단, 직금능		●	●	●	●	●	●	●	●	●	●	●
금사가 색사와 함께 직폭 전체에 투입되는 lampas 등			○	○	○	●	●	●	●	●	●	●

○ 중국에서만 발견, ● 한국 · 중국에서 모두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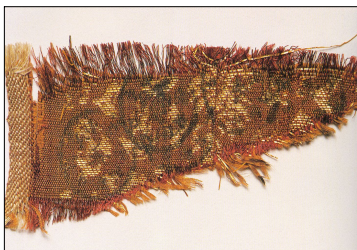
1) 위중조직법

경사 또는 위사 중 어느 한쪽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양쪽 모두 이중으로 된 직물을 이중직물이라고하며 이 중 위사가 두 겹이 되고 경사가 한 겹으로 된 직물을 위이중직이라고 한다. 즉 위중조직은 바탕조직을 이루는 지위사 외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문위사를 사용하는데 무늬를 짜는 금사가 한쪽의 직사에서 다른 편 직서까지 연속되도록 넣어져 중조직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부가문위사 위중조직이라고 한다(심연옥, 2002). 이 기법으로 제작한 직금 직물은 금사만으로 무늬를 표현하거나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할 수 있다.

(1) 금사만 사용한 방법

직물의 뒷면에는 금사가 직서에서 직서까지 직물 폭 전체 투입되어 있으며 이때 금사는 조직되어 있지 않고 떠 있는 상태이다. 이 때 사용된 편금사는 어린 양의 가죽 또는 종이를 얇게 만들고 그 표면에 금박을 입혀서 실처럼 조각을 잘라서 만들었다. 금박은 너무 얇아서 제작할 수 없으므로 금사를 보강하기 위해 양피 혹은 종이 등의 물질에 금박을 붙여 가늘게 잘라서 만든 편금사를 이미 제작한 직물의 위사 사이에 넣어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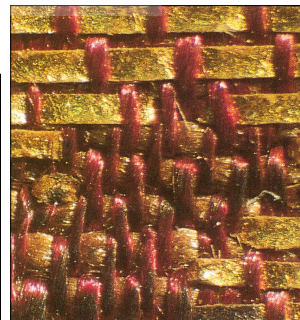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직물 중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유물이 다수 있다. <그림 7, 8, 9>는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그림 7> 직금능
(한국직물오천년, p. 234)



<그림 8> 직금능 뒷면
(한국직물오천년, p.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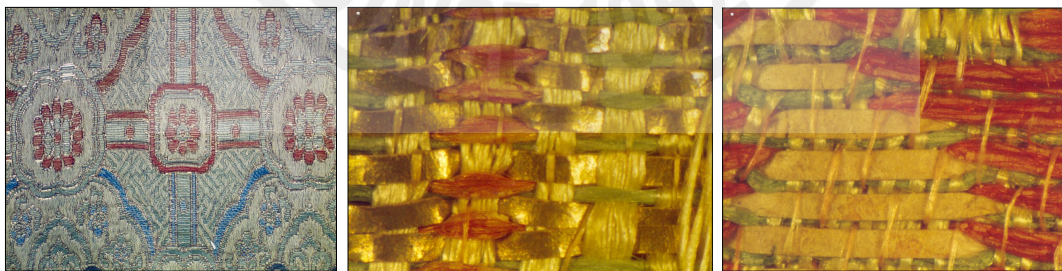
<그림 9> 직금능조직
(한국직물오천년, p. 235)

(2)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한 방법

직금류 중 가장 복잡한 조직이며 바탕조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지경사와 지위사 외에 문양을 제작하기 위한 문양위사(금사)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별경사가 투입되는 중조직 직물이다. 이 때 별경사는 전문적으로 문위사를 조직시키기 위해 있는 것으로 몇 올의 위사 사이에 한 올씩 배열되어 있으며 지경사와 다른 색상이다. 문위사는 문양부분에서만 직물 위로 드러나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직물 뒷면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 문위사는 별도로 정경된 별경사에 의해 조직되어 문양 뒷면에서 문양위사가 뜨거나 조직위사가 뜨는 단점이 없는 비교적 고난이도의 제작기법이다. 바탕 조직에 따라 지경사와 지위사가 평직 혹은 능직이면 금으로 분류하고 주자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면 금단으로 분류한다(심연옥, 2002).

별도의 경사로 조직되므로 별결금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특결금 이라고도 한다. 그 외 원대의 납석실, 직금금과 명·청대에 유행한 송식금 등의 직물 또한 모두 이러한 조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직물은 금사 외에 색사까지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고 있어 매우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에 소장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13세기에 처음 출현했으며 원대 유물 중에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그 후 명·청 시대에는 더욱 크게 유행했다.

<그림 10, 11, 12>는 탁의에 사용된 금단직물의 예로서 문위사에 금사와 색사가 함께 사용된 매우 화려한 직물이다.



<그림 10> 금단 <그림 11> 금단조직 확대도 <그림 12> 금단 뒷면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2) 부분 위중조직법

부분 위중조직법은 바탕조직을 이루는 지위사 외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문위사를 사용하는데 무늬를 짜는 위사가 식서에서 식서로 연속되지 않고 문양이 필요한 부분에만 떨어져 중조직으로 제직하는 방법이다. 즉 부분 위중조직법으로 제직한 직금 직물은 바탕조직에 문위사인 금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표현하며 무늬를 나타내는 금사가 한쪽의 식서에서 반대편 식서로 연속되지 않고 문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서만 떨어져 부분적으로 중조직으로 제직한 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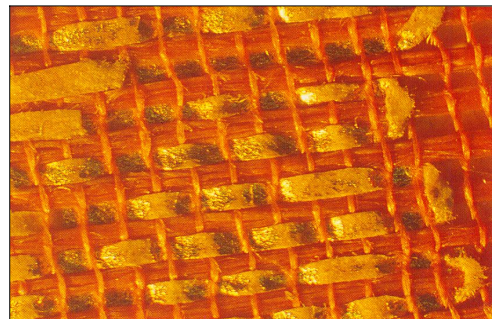
일본의 직물조직학에서는 이런 직물을 봉취직이라하며, 영어로는 brocade 라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렇게 제직하는 기법을 통경회위, 통경단위기법 이라고 하며, 이런 방법으로 제직한 직물을 장화라 하며 바탕조직에 따라 장화사, 장화라, 장화주 등으로 부른다. 부분 위중조직법으로 제직한 직금 직물 역시 금사만으로 무늬를 표현하거나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예가 있다.

(1) 금사만 사용한 방법

문직물 중 문위사를 사용하여 바탕조직 위에 무늬를 표현할 때 무늬를 짜는 위사에 금사만 사용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러한 조직의 유물이 있으며 통경회위기법으로 제직된 것이다. <그림 13, 14>는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그림 13> 장화사(통경회위기법)
(한국직물오천년, p.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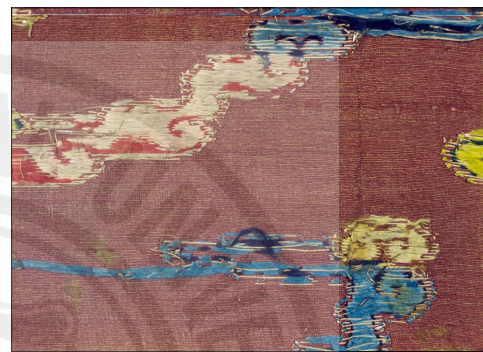
<그림 14> 장화사 조직
(한국직물오천년, p. 261)

(2)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한 방법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유물이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유물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5, 16>은 현재 경남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유물로서 탁의(卓衣)에 사용된 직물이며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역시 통경회위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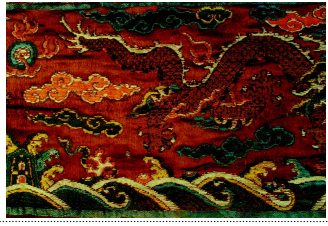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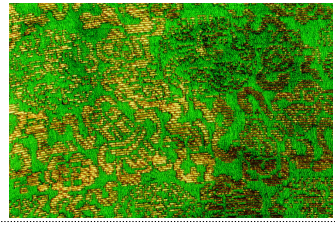


<그림 15> 직금 장화단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그림 16> 직금 장화단 뒷면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그림 17>은 조선시대 복식 및 직물에 직금법이 사용된 예이다. ①은 녹색 원삼이며 한삼부분에 화문이 직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②, ③은 회장저고리이며 깃, 쏘, 수구, 결마기에 연화만초문이 장식되어 있다. ④는 스란치마로 동자포도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⑤, ⑥, ⑦, ⑧은 탁의, 가마장식 등의 불교장식품에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직금법으로 장식된 예이다.

금사만 사용한 경우		
	① 원삼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p. 133)	② 회장저고리 (名選 下, p. 136)
		
	③ 회장저고리 (한국복식2천년, p. 91)	④ 스란치마 (한국복식문화사, p.290)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한 경우		
	⑤ 탁의 (통도사 소장)	⑥ 가마장식 직물 (통도사 소장)
		
	⑦ 탁의 (통도사 소장)	⑧ 탁의 (통도사 소장)

<그림 17> 직금법이 사용된 예

3. 금사자수법

자수는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한 땀씩 수놓아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한 방법으로 복식에 표현된 금박이나 직물의 지문(地文)보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이나 문양의 가감이 될 여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식성을 갖는 문양이라는 이면에 그 시대 사람들의 소망이나 기원을 수놓았다는 것을 염두 해 볼 때 복식에 표현된 다른 어떤 방식의 문양보다 동시대인들의 사상과 미의식이 투영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윤, 2004).

고구려시대에 이미 공공모임에는 자수의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징금수로 연화문 및 아귀 동작의 형태를 자수한 수라향냥이 발견되었다(권영숙, 2000). 그리고 고려시대 부인들의 고려시대 의복에 자수를 흔히 사용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고려도경), 유교사회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규방문화 속에서 자수기법이 꾸준히 발달했다.

자수는 다양한 색실을 사용하는 것 외에 금사를 사용하여 더욱 화려하게 자수하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금사를 사용한 금사자수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금사자수는 직물을 제직한 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장식한 기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경우를 말한다.

1) 금사징금수법

바늘귀에 꿰어지지 않는 굵은 실이나 면적이 있는 띠 등을 천위에 고정시키는 기법으로 주로 금은사, 금은박, 아주 굵게 꼰 실 등을 천위에다 놓고 징금실로 0.3cm~0.5cm 간격으로 징그는 방법이다(자수문양, 2004: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즉 여기서는 금, 위사를 견사로 실크 표면에 징그는 방법을 말하며 대부분 연금사가 사용된다.

금사징금수법은 금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사를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문양의 대부분을 금사로 표현하는 방법과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만 표현하고 문양의 내부는 비워두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금사를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자수하는 방법을 중국에서는 반금

수 또는 축금수라고 한다(요대사주, 2004). 즉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대부분을 표현하고 이 금사 중간에는 색사를 사용하여 정금수로 고정한다. 이때 자수에 사용된 금사는 연금사가 대부분이다(그림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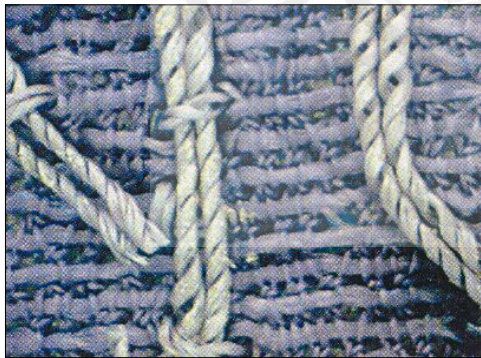


<그림 18> 정금수침법상도
(遼代絲綢, p. 125)



<그림 19> 기린홍배
(名選 中, p. 171)

두 번째로,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부분만 표현하고 윤곽선을 표현한 금사 중간에는 색사를 사용하여 정금수로 고정하고 문양의 내부는 비워두는 방법으로 이런 기법을 중국에서는 정금수라고 한다(요대사주, 2004)(그림 20, 21).



<그림 20> 금사정금수법의 예
(遼代絲綢. p. 123)



<그림 21> 귀주머니
(자수문양, p. 152)

2)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부분을 징금수법으로 표현하고 색사를 사용하여 문양 내부를 새틴자수기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평수위에 징금수로 주위를 돌아가며 가장자리를 만드는 기법으로 중국에서는 이런 기법을 압금채수라고 한다(요대사주, 2004)(그림 22, 23).



<그림 22> 압금채수법의 예
(遼代絲綢, p. 129)



<그림 23> 바늘꽃이
(자수문양, p. 218)

<그림 24>는 조선시대 직물에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예이다. ①, ②의 두 루주머니는 징금수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 전체를 둥글게 돌아가며 고정시키는 방법의 예이다. ③의 향주머니는 징금수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부분만 표현하는 방법의 예이다. 이 향주머니는 왕이 사용했던 향낭으로 다른 유물에 표현된 문자와 비교해 볼 때, 단독 문양으로 면을 메우지 않고 금사로 ‘明’자를 징금만으로 표현한 예이다. ⑤, ⑥의 굴레는 금사자수 중 문양의 가장자리에는 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를 놓고 문양의 내부는 새틴자수기법으로 채우는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 기법의 예이다. 그림 양옆의 花紋은 각각의 수실의 색상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꽃들이 내포하는 길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壽字 등의 길상어를 수놓아 길상의 뜻을 전하고 있다. ⑦은 쌍봉흉배로 유록색 운문단에 금사와 오색 견사로 봉황문양을 화려하게 수놓았으며, ⑧의 용보는 자주색 단에 금사와 오색 견사로 용 문양을 수놓았는데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금사징금수법		
	① 두루 주머니 (자수문양, p. 172)	② 두루 주머니 (자수문양, p. 173)
		
	③ 향주머니 (자수문양, p. 174)	④ 거북흉배 (한국복식문화사전, p.424)
금사징금수법 +색사평수법		
	⑤ 굴레 (자수문양, p. 131)	⑥ 굴레의 상세도 (자수문양, p. 130, 138)
		
	⑦ 쌍봉흉배 (名選 下, p. 189)	⑧ 용보 (名選 下, p. 188)

<그림 2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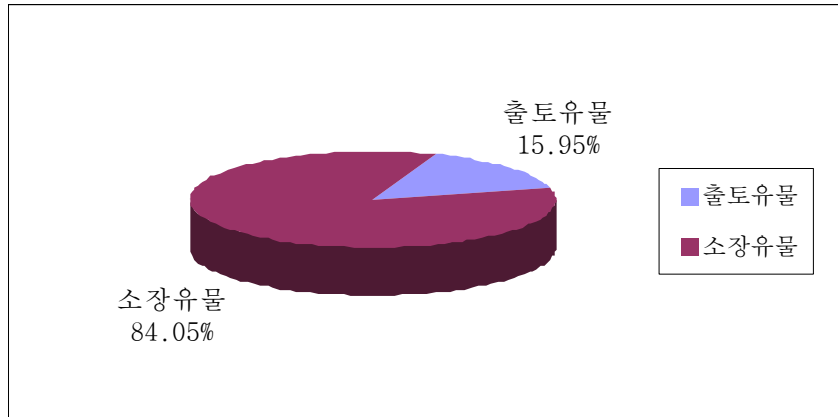
Ⅲ. 금장식기법에 나타난 특성

조선시대 직물 중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163점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금 장식기법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실증자료는 출토유물자료와 소장유물자료로 구분하였으며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유물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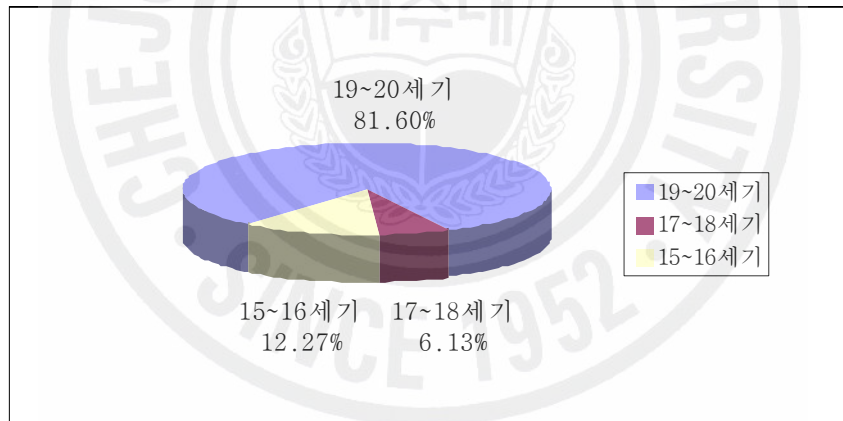
출처 시기	15~16세기	17~18세기	19~20세기	소계
출토유물 자료	은진송씨, 평산신씨, 청주한씨, 원주원씨, 장기정씨, 파평윤씨, 심수륜, 단양우씨 유물 등 총 20점	안동권씨, 청주한씨 김포출토 유물 등 총 3점	청주한씨, 화성출토 유물 총 3점	26점 (15.95%)
소장유물 자료	없음	이단하부인, 화순옹주, 통도사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소장 유물 등 총 7점	운현궁노공비, 영왕비, 덕온공주, 황세자빈, 왕비, 의왕비, 익종비, 통도사, 조대비하사품, 진주이씨 하옹, 영왕,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유물 등 총 130점	137점 (84.05%)
소계	20점(12.27%)	10점(6.13%)	133점(81.60%)	163점 (100%)

금장식기법을 사용한 직물은 출토유물자료(15.95%)보다 소장유물자료(84.06%)에서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다(그림 25). 출토유물자료 대부분이 조선 전반기의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의 경화, 섬유취화, 염료의 변퇴 및 광선 및 온·습도 변화에 의한 물리화학적 손상과 곤충,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금장식이 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 사용된 유물은 조선후기의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비교적 금 보존상태가 조선 전기의 유물에 비해서 양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5> 직물의 출처별 유형비

실증자료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5~16세기 유물은 12.27%이며 17~18세기 유물은 6.13%, 19~20세기 유물은 81.60%를 차지한다(그림 26).



<그림 26> 시기별 유형비

이 중 17~18세기의 유물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5~16세기 조선시대 초기의 사치와 퇴폐풍조에 대한 반발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치스러운 옷차림과 장신구 등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바 있어 조선 초기에 비해 훨씬 단순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17~18세기에는 장기간에 걸친 임진, 병자호란으로 말미

암아 파괴된 산업 구조가 복구되지 못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복식에도 실용성을 부여하여 단순화 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복식의 사치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화려한 복식 및 직물 수입 또한 금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20세기에는 출토유물자료보다 소장유물자료가 현저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가장 근래의 자료로서 금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왕가의 복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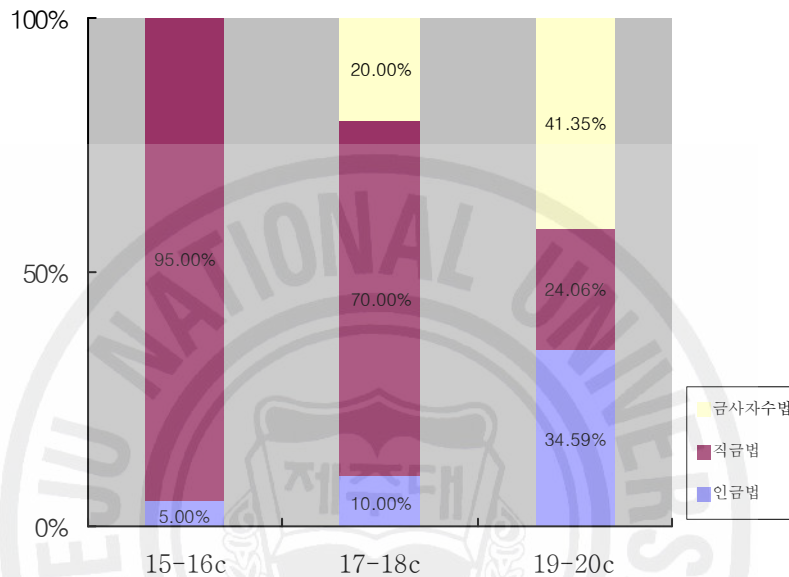
1. 유형 · 시기 특성

금장식기법의 유형·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금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직금법(35.58%)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금사자수법(34.97%), 인금법(29.45%)의 순서이다.

<표 4> 장식기법의 유형 · 시기별 출현율

장식기법 시기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유물수 (출현율)
15~16세기	1점	19점	-	20점 (12.26%)
17~18세기	1점	7점	2점	10점 (6.14%)
19~20세기	46점	32점	55점	133점 (81.60%)
합계	48점(29.45%)	58점(35.58%)	57점(34.97%)	163점 (100%)

다음으로 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그림 27>과 같다. 15~16세기에는 직금법의 비중이 95.00%를 차지하고 인금법이 5.00%였으며, 금사자수법은 한 점도 없었다. 17~18세기에는 직금법이 70.0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금사자수법이 20.00%, 인금법이 10.00%의 비중을 차지했다. 19~20세기에는 금사자수법이 41.35%, 인금법이 34.59%를 차지했으며 직금법이 24.06%였다.



<그림 27> 시기별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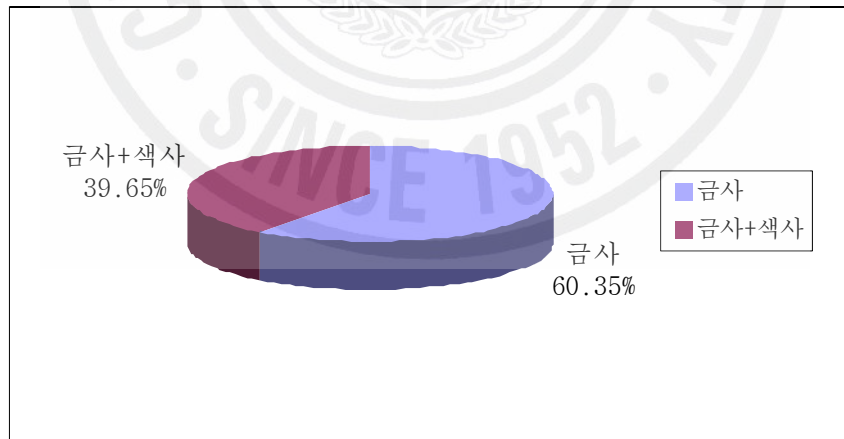
그러므로 15~16세기에는 직금법의 비중이 95.00%로 월등하게 높지만 이 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15~16세기에는 금사자수법과 인금법의 비중이 매우 낮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높아진다. 19~20세기에는 직금법의 비중보다 인금법과 금사자수법의 비중이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금사자수법의 비중이 41.3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불교의 번성과 더불어 불교 의식품을 장엄하게 장식하거나 일상생활 용품 등 자그마한 소품에 대부분 금사자수법을 사용하여 장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5~16세기의 유물은 모두 출토복식자료이며 19~20세기 자료의 대부분이 소장자료이다. 출토복식은 소장자료에 비해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는 조선 초기부터 금박 장인을 두어 금박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조선왕조실록, 1995)

조선초기부터 금박을 복식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금박은 사용 초기에 왕실과 같은 특권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미적·장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신분에 따라 문양의 사용을 달리하는 신분 구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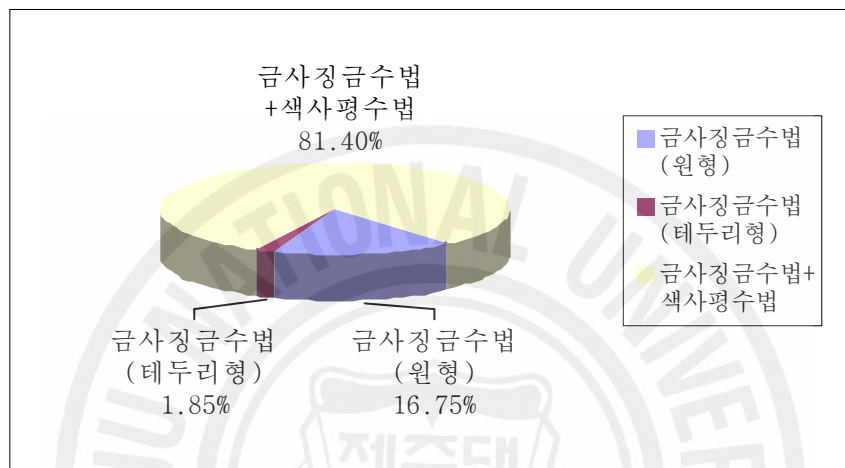
15~16세기에 출토된 인금 유물을 보면 직금법에 비해 금을 가루로 내거나 얇은 금박을 접착제로 직물표면에 부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인금 방법에 의해 부착된 금분은 떨어져 나가거나 세척 등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훼손되어 거의 형태를 알 수 없다. 이런 비실용적인 점이 있어서 한층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금 기술이 발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인금법 중의 한 가지인 금박 기술은 직금 기술보다 비교적 일찍 발달했지만 실증적 조사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의복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후기의 소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직금법은 금사가 직물 폭 전체 투입되는 위중조직법과 무늬 부분에만 투입되는 부분 위중조직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물을 직접 고찰하지 않고 의복 사진을 중심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금사가 어떤 형태로 투입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두 가지 기법은 색사와 금사를 모두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종류와 금사만 사용하여 장식한 종류가 있으며 금사만 사용한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8).



<그림 28> 직금법의 유형별 출현율

금사자수법은 조선 후기 소장유물자료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금사징금수법,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이 있으며 이 밖에도 하나의 유물 내에 2가지 이상의 기법이 혼합되어 있는 예도 있었다. 금사자수법의 유형비를 살펴보면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이 81.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글게 문양 전체를 징금수로 자수한 금사징금수법 중 원형이 16.75%를, 문양의 윤곽선만 징금수로 자수한 테두리형이 1.85%로 나타났다(그림 29).



<그림 29> 금사자수법의 유형비

2. 문양 특성

문양은 미적 쾌감을 야기 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장식하고 있는 점·선·면과 그것들의 통합에 의한 형상 혹은 그 형상과 색에 의해서 구성 배열된 도안을 말한다. 즉, 문양은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상과 이상 그들의 생활 감정과 원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양은 복식 구성의 중요 요소로서 예로부터 복식의 장식에 즐겨 사용되었으며 복식 내에서의 문양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복식미의 강조, 신분 표시, 상징적 표현수단 등의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도 각 민족의 전통문양은 자연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실제 혹은 상상적 양식화된 형태로서 한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표현된 조형양식이다. 우리 민족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이치

에 순응하려는 민족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정령숭배사상 등의 토속신앙에 근간을 둔 문양을 창조하였고, 이에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왜래 종교 사상에 기반한 문양을 창출하여 종류와 표현기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통 문양을 전개시켜왔다. 이러한 전통문양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문양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즐기는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문양의 주술적·사상적 상징성을 함축하여 현실적인 바램을 기원하는 표현방식으로 삼아왔다(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정아, 2004). 우리 전통 문양은 소재에 따라 용, 학, 봉황 등의 동물문양, 연화, 당초, 모란 등의 식물문양, 십장생문양의 자연문양, 壽·福字 등의 문자문양, 여의보주, 전보 등의 보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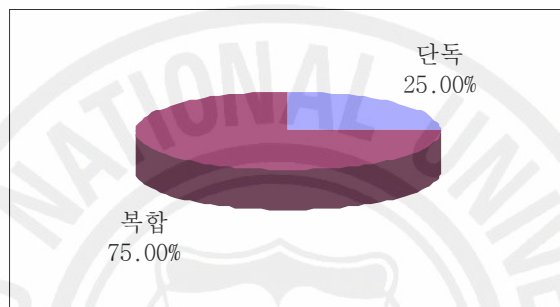
금장식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문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물 중 직물에 나타난 문양은 한 가지 문양만 사용된 단독형과 2~3가지 이상의 문양들이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문양의 유형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양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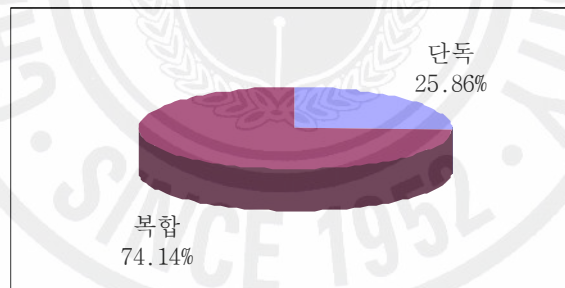
문양	장식 기법				유물수 (출현율)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단독	12점	15점	16점		43점(26.38%)	
복합	식물문+동물문	1점	4점	7점		12점(7.36%)
	식물문+보문	1점	9점	-		10점(6.13%)
	식물문+문자문	16점	6점	5점		27점(16.57%)
	식물문+자연문	-	-	3점		3점(1.84%)
	동물문+자연문	3점	12점	4점		19점(11.67%)
	동물문+문자문	2점	-	1점		3점(1.84%)
	문자문+자연문	-	2점	-		2점(1.22%)
	식물문+동물문+문자문	9점	-	2점		11점(6.74%)
	식물문+문자문+보문	1점	-	-		1점(0.61%)
	식물문+동물문+자연문	-	1점	13점		14점(8.59%)
	식물문+동물문+문자문+보문	3점	-	-		3점(1.84%)
	식물문+동물문+문자문+자연문	-	-	6점		6점(3.68%)
	미상	-	9점	-		9점(5.53%)
	합계	48점	58점	57점		163점(100%)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모두에서 단독형의 비중(26.38%)보다 복합형의 비중(73.62%)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30, 31, 32). 이러한 결과는 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정아(2004)의 ‘보문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장현주(2004)의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구름문양의 유형과 특성’, 장현주, 하종경(2005)의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특성’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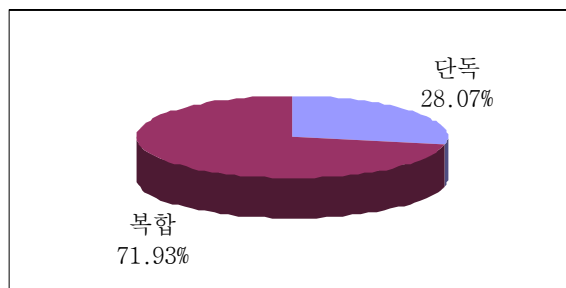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에서 복합 문양이 사용된 예가 훨씬 많은 이유는 단독 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그림 30> 인금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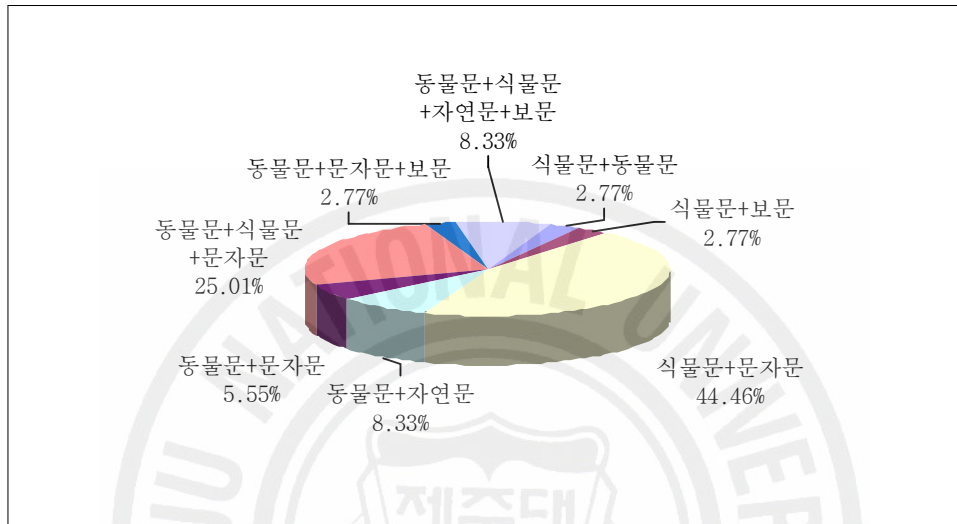


<그림 31> 직금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그림 32> 금사자수법의 문양 유형별 출현율

<그림 33>은 인금법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을 보면 인금법에 사용된 복합문양 중 식물문양+문자문양(44.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동물문양+식물문양+문자문양(25.01%)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식물문양+문자문양+보문(2.77%)과 식물문양+보문(2.77%)은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3> 인금법이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34>는 인금법으로 단독문양 및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일반인에게는 금장식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금을 의복에 장식할 수 있는 신분은 귀한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또한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 조사된 인금법의 실증적인 복식유물은 궁중예복 및 평상복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단독 문양 형태	① 문자문양 	② 문자문양 
	당의 (名選 下, p. 132)	원삼 (名選 下, p. 100)
복합 문양 형태	③ 동물문양+문자문양 	④ 식물문양+문자문양 
	당의 (名選 下 p. 134)	원삼 (문화재대관,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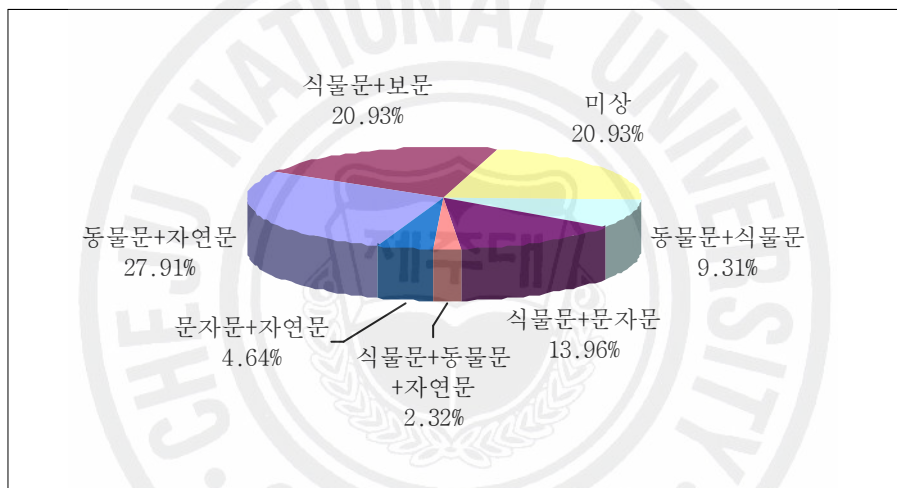
<그림 34> 인금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

<그림 34>의 ①, ②는 19세기 덕온공주의 녹당의와 원삼으로 의복 전체에 壽·福字의 길상어가 단독으로 인금되어 있다. ③은 왕실과 班家에서 입었던 조선조 말기의 당의로 壽·福字가 전체적으로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깃에는 박쥐문양의 금박이 찍혀있어 글자문양과 동물문양이 함께 복합문양으로 사용되었다. ④는 19세기의 왕비 녹원삼으로 전면에는 壽·福字를 엇갈려

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인금되어 있으며 색동 부분에는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복합문양에는 문자문양과 함께 동물문양이 사용된 예가 있는데 동물문양은 신앙의 대상으로 두려운 존재이면서 자애로운 존재이며, 원시적인 민간 신앙 뿐 아니라 힘과 권력,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궁중 예복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35>는 직금법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를 보면 직금법에 사용된 복합문양 중 동물문양+자연문양이 27.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물문양+보문양이 20.93%로 높았다. 궁중에서 가장 애호한 문양이 동물문양, 자연문양, 보문양으로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문양들은 현저히 높은 빈도를 보이며 착장자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서 문양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직금법으로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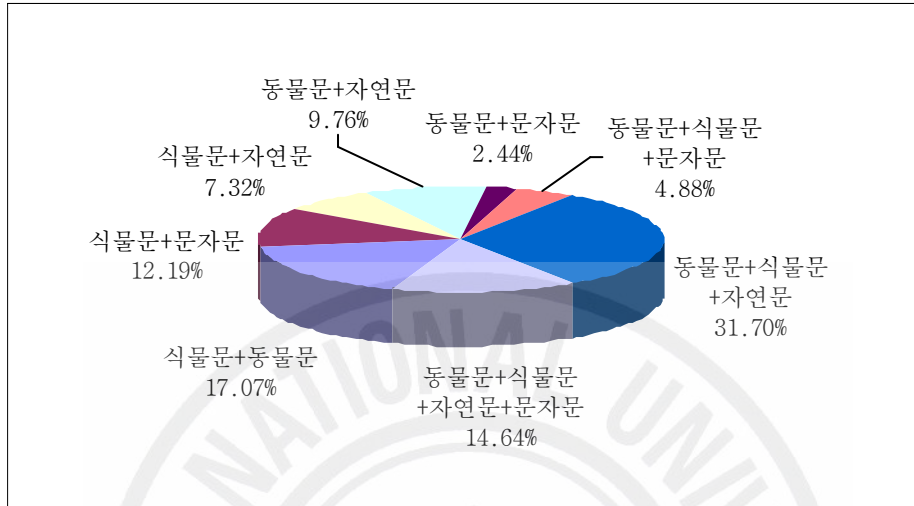
<그림 36>은 직금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이 사용된 예이다. <그림 36>의 ①은 18세기 출토유물로 수복칠보 석류문 황갈단 당의이며 壽·福字가 의복 전체에 직금법으로 되어있다. ②는 17세기의 출토유물인 화문단 겹치마이며 치마 전체에 연화만초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③은 20세기 초 동궁비의 원삼이며 양쪽 어깨와 배래, 앞자락 무릎 부분에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이 직금법으로 장식된 매우 화려한 유물이며 ④는 현존하는 원삼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써 17세기 이단하 부인의 것으로 壽·福字의 문자문양과 石榴 등의 식물문양이 있는 紋緞직물 바탕에 어깨와 무릎 부분에 바탕과 동일한 문양으로 직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⑤는 18세기 후반 공주, 옹주 원삼으로 화려한

품격을 보여주며, 어깨와 배래, 무릎 부분에 동자포도문이 직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⑥은 삼희장저고리이며 길, 깃, 쏘, 끝동, 결마기에 식물문양과 보문이 직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단독 문양 형태	① 문자문양	② 식물문양
	 <p>당의 (문화재대관, p. 269)</p>	 <p>치마 (문화재대관, p. 328)</p>
복합 문양 형태	③ 동물문양+식물문양	④ 식물문양+문자문양
	 <p>원삼 (문화재대관, p. 33)</p>	 <p>원삼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82)</p>
	⑤ 동물문양+자연문양	⑥ 식물문양+보문양
 <p>원삼 (한국복식명품, p. 124)</p>	 <p>삼희장저고리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135)</p>	

<그림 36> 직금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그림 37>은 금사자수기법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으로 동물문양+식물문양+자연문양이 31.70%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물문양+식물문양이 17.07%로 나타났다.



<그림 37>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금사자수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다양한 구성을 보이며, 착장자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종류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하나의 장식 공간에 여러 가지 길상 도안을 수놓아 보다 다양하면서도 현세 기복적인 바램을 표현하였다. 신분을 상징하는 복식에는 주로 꽃과 같은 식물문양과 나비, 새, 박쥐 등의 동물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길상적인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금사자수법이 표현된 유물은 부피가 큰 복식보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소품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림 38>은 금사자수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①식물문양	②동물문양
단독 문양 형태		
	진주낭 (名選 下, p. 196)	繡蝙蝠香囊노리개 (한국복식명품, p. 172)
복합 문양 형태	③동물문양+식물문양+자연문양	④동물문양+식물문양
		
	단학홍배 (한국전통복식2천년, p. 112)	繡수저집 (名選 下, p. 197)
	⑤동물문양+자연문양	⑥동물문양+식물문양 +자연문양+문자문양
		
공작홍배 (名選 中, 172)	귀주머니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 201)	

<그림 38> 금사자수법으로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

<그림 38>의 ①, ②는 금사자수법으로 단독 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①은 18세기 유물로 진주낭이며 왕실의 큰 경사나 의례 시 착용했던 것으로 홍색 운문단에 금사로 꽃 모양을 만든 후 징금수를 놓은 것이다. ②는 18세기 繡蝠蝠香囊노리개로써 박쥐는 복신(福神)의 사자(使者)로 여겨 길조(吉兆)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여인들의 장신구에까지 애용되었다. 이 노리개는 양반 댁 규수(閨秀)가 정초나 생일에 佩用하였던 것이다.

<그림 38>의 ③, ④는 금사자수법으로 복합문양을 나타낸 예이다. ③은 단학홍배이며 동물문양의 학, 자연문양의 구름과 수파, 식물문양의 불로초 등 복합문양이 금사자수법으로 표현된 예이다. ④는 19세기의 繡수저집으로 수저를 보관하기 위한 주머니이다. 이 유물은 홍색의 문단에 각색의 견사로 식물문양의 연꽃과 동물문양의 물고기, 박쥐, 오리 등이 수놓아져 있으며 수놓은 테두리에는 금사로 징금수를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식물문양들은 한 쌍으로 표현되어 부부의 화합과 행복을 의미한다. ⑤는 금사와 견사를 사용하여 금사자수한 공작홍배이며 공작의 동물문양과 수파, 구름 등의 자연문양이 함께 사용되었다. ⑥은 귀주머니이며 동물문양의 오리, 식물문양의 연꽃, 자연문양의 수파, 문자문양의 ‘수’자 등을 복합문양으로 사용하여 금사자수한 예이다. 이 귀주머니는 장수와 건강 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어 명절이나 생일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패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에서 모두 단독문양보다 복합문양이 사용된 예가 훨씬 많았다. 단독문양 중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이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부귀, 장수 등의 길상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문양 중에는 동물문양+자연문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것은 왕가의 복식에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동물문양으로는 용문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권위와 위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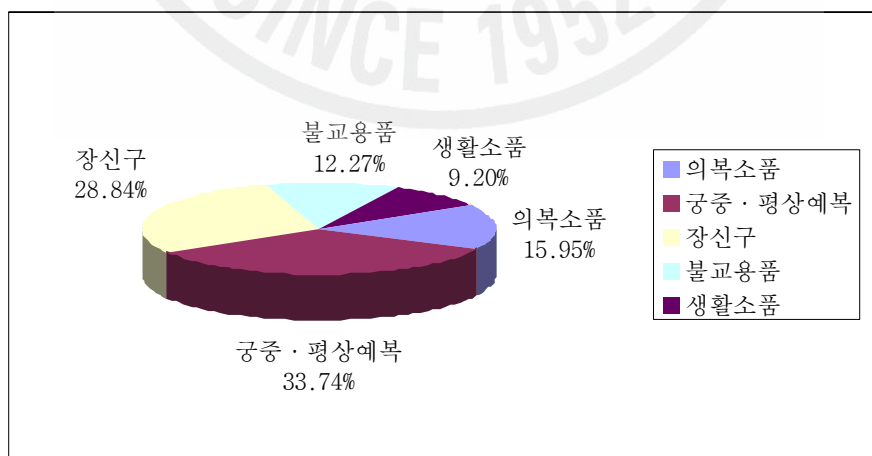
3. 용도 특성

금장식기법은 의복(당의, 원삼, 치마 등), 의복소품(홍배, 보, 대대 등), 장신구(주머니, 조바위, 굴레, 땡기 등), 불교용품(탁의, 가사 등), 생활소품(수저집, 골무, 바늘꽂이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용도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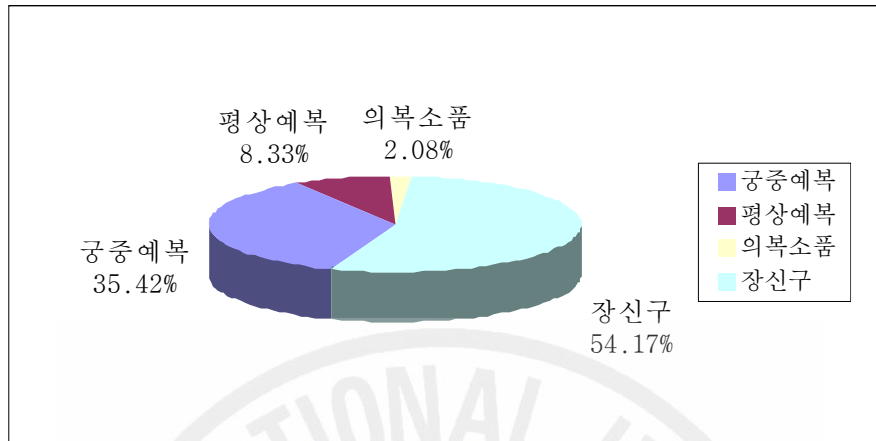
용도		장식 기법			유물수 (출현율)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의복	궁중예복	17점	16점	-	33점	55점 (33.74%)
	평상예복	4점	18점	-	22점	
의복소품		1점	2점	23점	26점(15.95%)	
장신구		26점	2점	19점	47점(28.84%)	
불교용품		-	20점	-	20점(12.27%)	
생활소품		-	-	15점	15점(9.20%)	
소계		48점(29.45%)	58점(35.58%)	57점(34.97%)	163점(100%)	

이 시기 금을 의복에 장식할 수 있는 신분은 귀한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또한 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9>를 보면 궁중 및 평상 예복 등의 의복에 사용된 경우가 33.74%이며 장신구에 사용된 경우가 28.84%, 의복소품에 사용된 경우는 15.95%, 불교용품에 사용된 경우가 12.27%, 생활소품에 사용된 경우가 9.20%이다.



<그림 39>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용도별 출현율

<그림 40>은 금장식기법 중 인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0> 인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인금법은 당의, 대란, 스란치마 등의 궁중예복(35.42%), 삼회장저고리 등의 평상예복(8.33%), 의복소품(2.08%), 장신구(54.17%)에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땡기, 주머니 등 장신구(54.17%)에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 의복장식의 간소화 및 고급직물 사용금지령이 꾸준히 내려지면서 부피가 작으면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장신구류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신구는 의복류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오늘날까지 형태가 잘 보존될 수 있고 다른 의복에 비해 관리하기도 편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궁중예복(35.42%)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인금법은 다른 장식기법에 비해 세탁견뢰도가 낮아서 세탁을 자주하지 않는 궁중예복류 및 장신구를 장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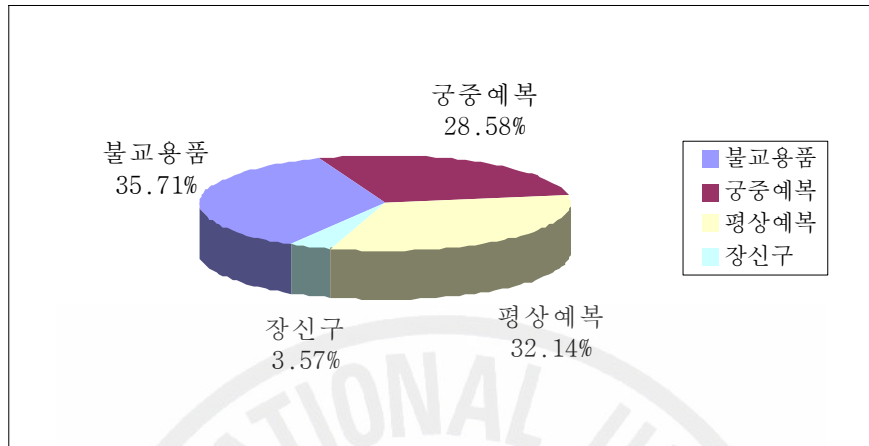
<그림 41>은 금장식기법 중 인금법이 조선시대 장신구 및 궁중예복에 사용된 예이다.

장신구에 사용된 예		
	<p>① 도투락땡기 (한국복식명품, p. 222)</p>	<p>② 조바위 (名選 下, p. 41)</p>
궁중예복에 사용된 예		
	<p>③ 대란치마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 102)</p>	<p>④ 당의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 78)</p>

<그림 41> 인금법이 사용된 예

<그림 41>의 ①, ②는 인금법이 장신구에 사용된 예이다. ①은 반가에서 婚姻시 사용한 예장용 땡땡기이며 보통 땡기보다 크고 앞 땡기와 함께 착용하였다. 땡기 중앙에는 한쌍의 봉황과 길상문, 땡기 끝에는 박쥐, 봉황, 천도, 동자 등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②는 뺨을 둥글게 감싸는 형태의 조바위이며 이 유물의 겉감은 검은색 단(緞)직물로 표면 전체에 화문과 길상문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③, ④는 인금법이 궁중예복에 사용된 예이다. ③은 동절기용 겹대란치마로 윗스란단에는 ‘富貴多男’의 길상문양과 천도, 불로초, 연꽃 등의 식물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레스란단에는 壽·福字와 매화문양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④는 연두색 도류불수문고단(桃柳佛手紋庫緞)으로 지어진 당의이며 의복 전체에 壽·福字가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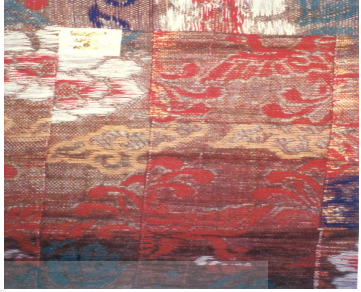

<그림 42>는 금장식기법 중 직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 직금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2>를 보면 직금법은 불교용품(35.71%)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궁중예복(28.58%) 및 평상예복(32.14%) 등의 의복류, 불교용품(35.71%)과 장신구(3.57%)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용품은 가사, 탁의, 불경덮개 등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용품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직금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은 탁의, 가사 등의 불교용품 및 궁중·평상예복에 직금법이 사용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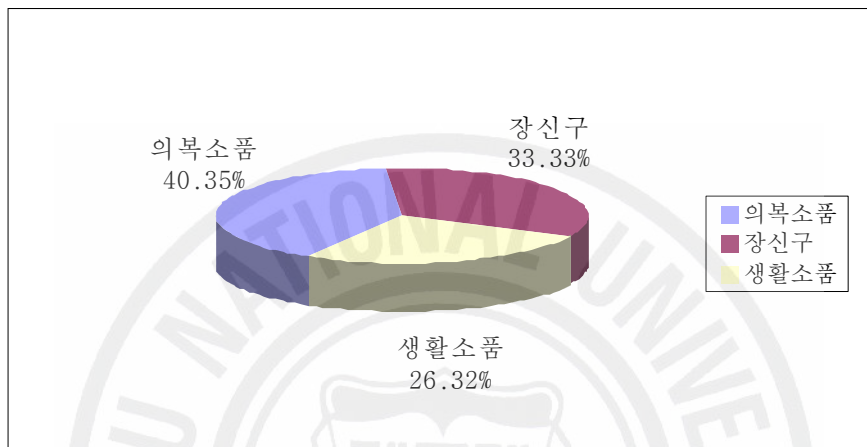
불교용품에 사용된 예		
	① 탁의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② 가사 (월정사 소장)
궁중·평상예복에 사용된 예		
	③ 회장저고리 (문화재대관, p. 327)	④ 당의 (名選 下, p. 131)

<그림 43> 직금법이 사용된 예

<그림 43>의 ①, ②는 사찰에서 법상(法床) 위를 덮거나 옆으로 쳐서 두르던 용도로 사용된 탁의와 승려의 법복인 가사이다. ①은 탁의이며 직물 전체를 중조직으로 제직했을 경우 금사와 색사의 낭비를 막기 위해 문양부분만 장화기법으로 제직한 직물이다. 그리고 직물 뒷면에는 색 위사가 직물 폭 전체를 관통하지 않고 문양을 나타내는 부분에만 떠 있다. ②는 스님들의 복식인 가사의 일부분으로 문양의 테두리에 직금단으로 장식되었다. ③, ④는 직금법이 평상예복과 궁중예복에 사용된 예이다. ③은 17세기로 추정되는 금선단 회장저고리로 출토 당시 너무 손상되어 종이로 배접해 놓은 상태이다. 저고리의 길은 토주(吐紬)로 되어 있고 깃은 연화문단으로 되어 있으며 끝동은 동자

문이 시문된 금선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선단은 다른 유물들과 달리 포도무늬 없이 동자만 있어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④는 덕온공주가 16세에 남녕위 윤의선에게 하가한 후 첫 동지 명절에 착용하였던 자적당의이며 같은 자적도류불수단(紫的桃榴佛手緞)에 수·복 문자문양이 직금되어 있다.

<그림 44>는 금장식기법 중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용도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4>를 보면 금사자수법은 의복소품(40.35%)과 장신구(33.33%), 생활소품(26.32%)순으로 사용되었으며 궁중예복 및 평상예복인 의복류에는 전혀 금사자수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의복장식품 중에서는 특히 흉배와 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장식품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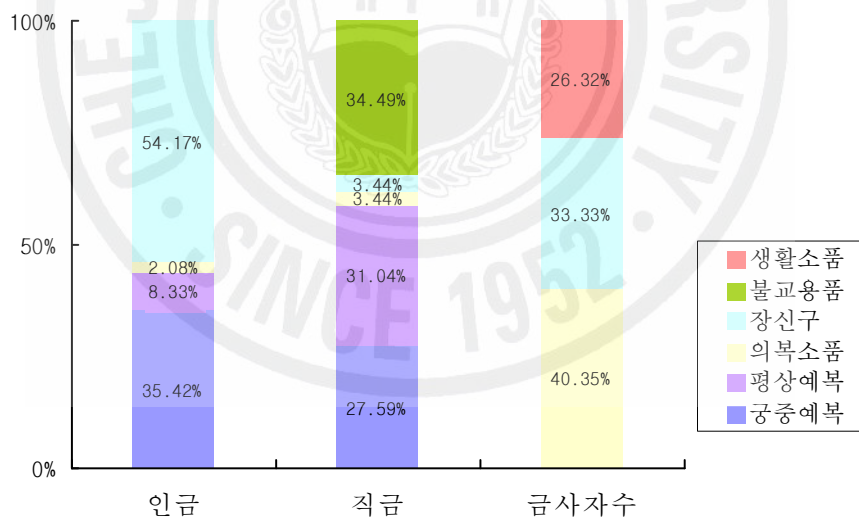
<그림 45>는 금사자수법이 의복소품, 장신구 및 생활소품에 사용된 예이다.

<p>의복 소품에 사용된 예</p>		
	<p>① 쌍호흉배 (한국복식문화사, p. 216)</p>	<p>② 오조룡보 (문화재대관, p. 239)</p>
<p>장신구에 사용된 예</p>		
	<p>③ 수염낭 (名選 下, 195)</p>	<p>④ 골레 (자수문양, p. 137)</p>
<p>생활 소품에 사용된 예</p>		
	<p>⑤ 골무 (자수문양, p. 200, p. 201)</p>	<p>⑥ 보자기 (자수문양, p. 295)</p>

<그림 45>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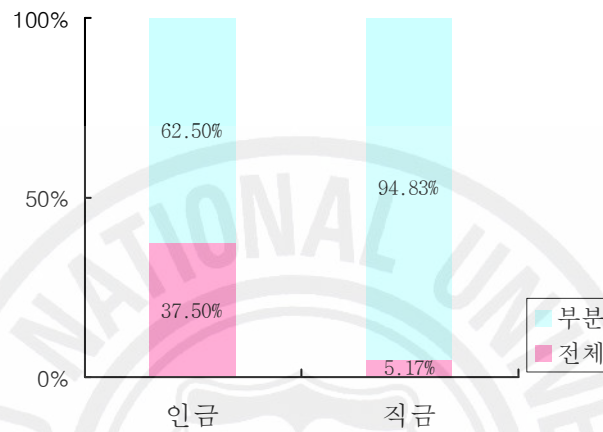
<그림 45>의 ①은 무관 당상관(堂上官)이 관복에 부착하였던 쌍호흉배로 표면전체에 다양한 색사로 수놓아져 있으며 호랑이 눈에만 부분적으로 금사를 수놓아 더욱 웅맹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흉배와 보에 사용된 문양의 대부분은 동물문양이며, 황후나 황족의 복식에 수놓은 새 문양은 상서로운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거나, 용, 봉황 등의 문양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는 오조룡보이며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하여 용 문양 전체를 표현하였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예로부터 天子나 국왕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의 직계가족들은 용보를 부착하였으며 용의 발톱수로 신분의 구분을 두었다. ③, ④, ⑤, ⑥은 주머니, 굴레, 골무, 보자기 등의 장신구와 생활소품에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부분을 표현하고, 문양 내부에는 색사를 사용하여 새틴자수기법으로 표현한 예이다.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이 세 가지의 장식기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그림 46>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인금법은 장신구와 궁중예복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직금법은 불교용품 및 예복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금사자수법은 의복소품과 장신구, 생활소품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장식기법별 용도별 출현율

의복에 금장식이 사용된 경우는 의복 전체적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 즉 인금법의 경우는 의복 전체에 사용된 경우가 37.50%, 의복 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62.50%이며, 직금법의 경우는 의복 전체에 사용된 경우가 5.17%, 의복 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94.83%로 의복의 부분장식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



<그림 47> 의복에 금장식이 사용된 경우
(부분:전체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8>은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로 금장식은 저고리, 원삼, 당의를 비롯한 상의류에서는 구성선을 따라 깃, 끝동, 쇄, 곁마기, 어깨 부분, 단, 도련, 수구, 옆 무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치마를 비롯한 하의류에서는 치맛단 등에 사용되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p>당의 (한국직물오천년, p. 225)</p>	<p>회장저고리 (名選 下, p. 139)</p>
	
<p>스란치마 (한국직물오천년, p. 313)</p>	<p>회장저고리 (한국직물오천년, p. 255)</p>
	
<p>당저고리 (名選 下, p. 125)</p>	<p>치마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27)</p>

<그림 48>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그림 49>는 금장식이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로 대부분 여성복식에 많이 나타났다. 귀한 금을 의복 전체에 장식할 수 있는 신분은 극히 일부이며 그 중에서도 의복 전체에 금장식을 하는 경우는 더욱 특별한 경우로 고귀한 신분일수록 넓은 면적의 문양에 표현됨으로써 착용자의 존귀함을 더욱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지윤, 2004). 그래서 조선시대 의복 중 원삼이나 당의 등의 의례복의 경우 의복 표면 전체에 금장식을 표현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평산신씨 묘에서 출토된 금선단 치마는 16세기 후반의 것으로 치마 전체에 금사를 넣어 제작한 것이다. 치마의 양 옆에는 다트를 잡아서 앞, 뒷길의 차이를 두어 의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마에 금장식기법이 사용되는 경우 치마단 부분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유물은 치마 전체에 사용되었으며 출토품 중 이런 예는 유일하다.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사회 속에서 절제된 여성의 복식미를 의복 속에 표현하는 수단으로 화려한 금을 의복에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9>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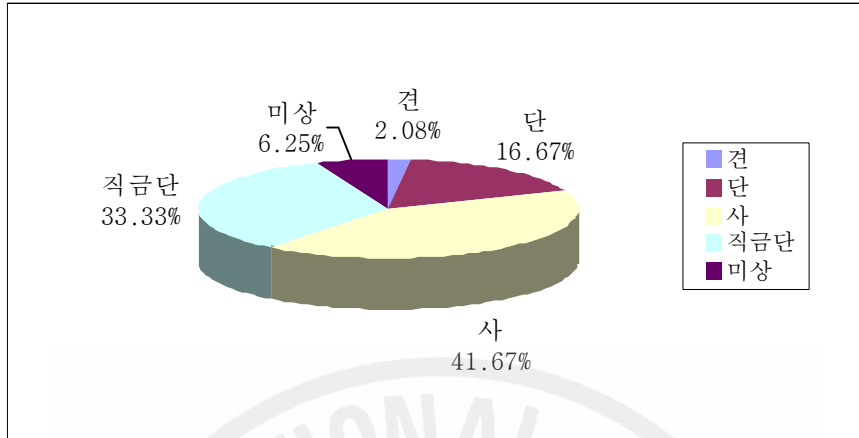
4. 직물 특성

<표 7>은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화려하고 귀한 직물을 만들기 위해 직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제작한 후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직물은 견직물이 대부분이며(93.26%) 모직물(3.06%)은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견직물 중에서는 중조직 직물인 직금단(41.1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자직의 단(30.68%), 익조직의 사(14.11%), 평직의 견(1.84%)의 순이다. 그리고 모직물은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한 유물에서 볼 수 있다.

<표 7>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직물의 종류		장식기법의 유형			유물수 (출현율)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		
견직물	일반 직물	絹	1점	-	2점	3점(1.84%)
		緞	8점	-	42점	50점(30.68%)
		紗	20점	-	3점	23점(14.11%)
	중조직 직물	織金緞	16점	49점	2점	67점(41.10%)
		망단	-	6점	-	6점(3.68%)
		직금장화 단	-	3점	-	3점(1.85%)
모직물		-	-	5점	5점(3.06%)	
미상		3점	-	3점	6점(3.68%)	
소계		48점 (29.45%)	58점 (35.58%)	57점 (34.97%)	163점 (100%)	

<그림 50>은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0>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50>을 보면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 중에서는 사(紗)가 41.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직금단(織金緞)이 33.33%, 단(緞)이 16.67%, 견(絹)이 2.08%였다. 그리고 직물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많이 손상되어 종류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6.25% 있었으며 모직물은 한 점도 없었다.

인금법이 사(紗)직물에 많이 사용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얇고 가벼운 재질 특성을 가진 사는 금 성분을 가하면 화려하면서도 비교적 무게감이 느껴져 안정감 있는 소재로 만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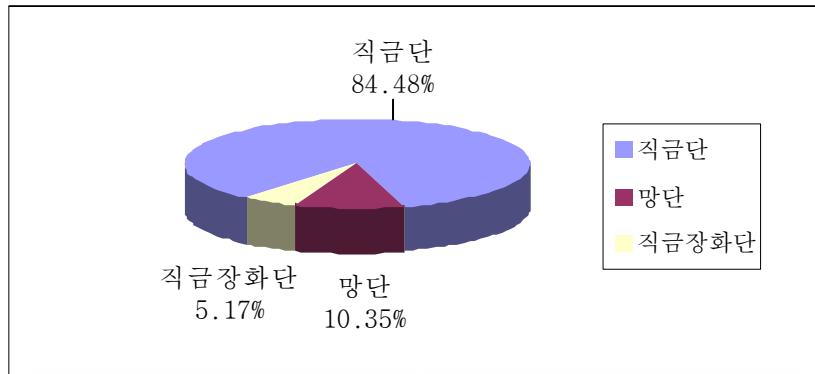
<그림 51>은 인금법이 사(紗)직물에 사용된 예이다. ①은 검정색 사(紗)직물로 된 복건으로 길상무늬와 글자가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②는 갑사 구장복 중단으로 깃 부분에만 ‘亞’자가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③은 영왕의 분홍 생고사 사규삼이며 옷깃, 쏘, 수구, 밑단, 옆선의 트임선까지 모두 검은 선이 둘러져 있는데 이 부분에 길상을 의미하는 길상어와 박쥐 등의 동물 문양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④는 사(紗)직물로 만든 굴레이며 壽·福字와 화문 등이 인금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머리 윗부분에는 구슬과 술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림 51> 인금법이 사(紗)직물에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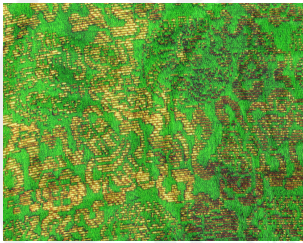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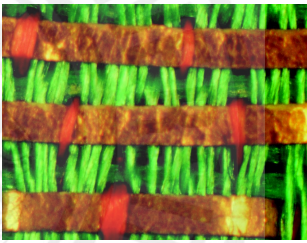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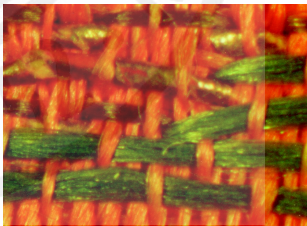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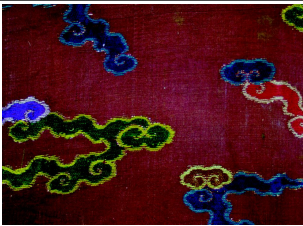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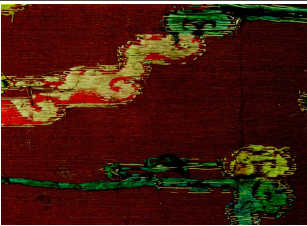
<그림 52>는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를 보면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 중에서는 직금단이 8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망단 10.35%, 장화단 5.17%를 차지한다.



<그림 52>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53>은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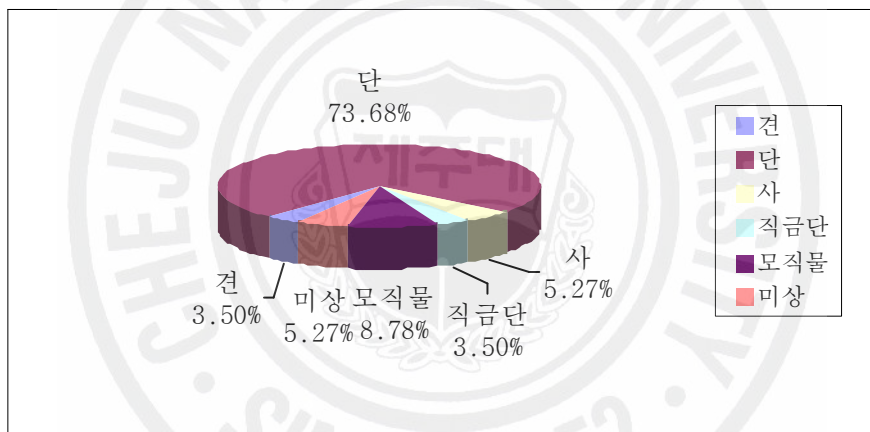
직금단		
	탁의 앞면	탁의 조직도, 통도사 소장품
망단		
	탁의 앞면	탁의 조직도, 통도사 소장품
직금·장화단		
	탁의 앞면	탁의 조직도, 통도사 소장품

<그림 53> 직금법이 사용된 예

<그림 53>의 직금단(織金緞)은 주자직 바탕 조직에 직폭 전체에 금사를 투입하여 문양을 나타낸 위중조직 직물이며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직물이다. 망단과 직금 장화단은 모두 경주자직 바탕에 금사와 3색 이상의 색사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직물 전체를 금사 및 색사를 사용하여 중조직으로 제직했을 경우 낭비를 막기 위해 실제 용도와 규격에 맞게 문양을 설계하여 문양부분만 중조직으로 제직한 부분 위중조직직물이다.

망단에 사용된 문양은 이무기와 여의운문이며 직물 전체에 문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문양들이 독립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며 문위사는 직물 뒷면에 모두 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직금 장화단 역시 금사 및 색사를 직폭 전체에 넣지 않고 문양 부분에만 넣어 제직한 것으로 무늬 부분에만 여러 가지 채사가 작은 북으로 위타된 형태로 제직된 직물이다.

<그림 54>는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4>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54>를 보면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 중에서는 단(緞)이 7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직물이 8.78%, 사(紗)가 5.27%, 견(絹)과 직금단(織金緞)이 3.5%였으며 직물의 손상으로 인해 알아보기 힘든 직물의 종류가 5.27%로 나타났다. 자수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탕조직이 도톰한 주자조직의 단류가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택과 두께가 있는 단(緞)직물에 금·은사를 사용해 문양을 표현한 금사자수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림 55>는 금사자수법이 단(緞)직물에 사용된 예이다. ①, ②는 꽃문양이 정귀진 바늘꽃이와 버선본집으로 금사를 사용하여 꽃문양의 윤곽선을 표현하고 문양 내부에는 여러 가지 색사를 사용하여 새틴자수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③은 향갑노리개로 중앙에는 가마장식과 그 외에 자연문양, 식물문양 등으로 금사자수법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여인들이 차고 다니거나 방에 걸어두어 은은한 향을 풍기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④는 함 받침보로 새와 식물문양의 윤곽선에 금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문양 내부에는 여러 가지 색사를 사용하여 새틴자수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55> 금사자수법이 단(緞)직물에 사용된 예

이렇게 금장식이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인금법은 사(紗)직물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금법은 직금단(織金緞)직물에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사자수법은 단(緞)직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5. 내적특성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이 가지는 내적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은 사회적 신분과 부를 상징한다. 예로부터 금은 사치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상류층의 상징물로 장중한 권위와 부를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소재라고 생각된다.

특히 엄격한 신분구조를 유지했던 조선시대에는 직물에 사용한 금장식이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거나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상류계층의 복식에 사용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 직물에서는 금·은을 가공하여 직물 표면에 붙이거나 실로 만들어 다른 실과 직조하여 직물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금·은사로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런 금장식기법은 왕실과 같은 특권층에서 주로 사용하면서 장식적·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신분에 따라 문양을 달리 사용하여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분이 높을수록 금사를 사용한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착용자의 신분을 강조하였던 예를 볼 수 있다.

둘째,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은 복식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복식은 색채, 문양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장식한다. 복식에 금을 사용하여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장식함으로써 강한 개성과 미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은 미적·장식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장식기법은 복식의 전체보다 부분에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저고리의 경우 깃, 섶, 곁마기, 끝동, 치마의 경우 치마 단 부위, 그리고 포의 경우 앞가슴에 부착하는 보, 흉배 등 눈에 쉽게 띄는 부위에 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장식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장식에 있어서 대칭을 이루거나 구획되어 일정하게 배치되는 장식문양은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는 장식표면에 일종의 질서와 균형, 통일감 등을 부여함으로써 복식 전체가 시각적으로 정리된 분위기를 형성하며, 한층 정제되고 완성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셋째,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기법 중 인금의 경우에는 음양사상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양사상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되는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지며 음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이론이다.(한국철학회, 1987) 조선시대 인금법이 사용된 유물 중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남색 스란·대란치마, 녹색 당의, 녹색 원삼, 흑색 조바위, 흑색 복건, 자주색 저고리 등에서 남색, 녹색, 흑색, 자주색 등은 모두 음의 속성을 가진 색상이며 여기에 황색의 금은 양의 속성을 가진 색상이다. 그러므로 인금법에 서는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진 색상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금장식기법을 인금법, 직금법, 금사자수법으로 분류하여 각 장식기법의 유형·시기, 문양, 용도, 직물특성 및 내적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금은 금가루 및 매우 얇은 금박을 접착제와 함께 사용하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금가루를 사용하는 니금법과 살금법 그리고 금박을 사용하는 첩금법이 있다. 문헌상으로 보아 신라 흥덕왕 때 복식 금제에 니금의 사용을 신분별로 금하는 조목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금 및 직금 제작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금직물의 대용품으로도 제작되었으나 견뢰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2. 직금은 기본 조직을 이루는 경·위사 외에 별도로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한 중조직 직물을 말한다. 제작방법에 따라 금사를 무늬부분에만 사용하여 제작하는 부분 위중조직기법과 금사가 직물 폭 전체에 사용되어 문양을 표현하는 위중조직기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과 금사와 색사를 모두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금이 가진 비실용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견고하게 제작에 의해 장식하는 기술이었다.

3. 금사자수는 직물을 제작한 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장식한 기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경우이다. 이것은 문양의 내부에는 새틴자수법으로 채우고 윤곽선 부분에만 금사를 사용한 금사징금수법+색사평수법과,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 혹은 문양의 대부분을 표현하고 금사 중간에 색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금사징금수법이 있다.

4. 금장식기법의 유형·시기별 출현율은 직금법(35.58%)이 가장 높으며, 금사자수법(34.97%), 인금법(29.45%)의 순서이다. 15~16세기에는 직금의 비중이 95.00%로 월등하게 높지만 이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금사자수법과 인금법의 비중은 15~16세기에는 매우 낮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5.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 유물에 나타난 문양은 한 가지 문양만 사용된 단독형 보다 2~3가지의 다른 문양들이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이들 모두 동물문양과 자연문양이 조합된 예가 많았다. 이것은 단독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6. 금장식기법은 궁중예복 및 평상예복 등의 의복에 사용된 경우(33.7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장신구(28.84%), 의복소품(15.95%), 불교용품(12.27%), 생활소품(9.20%) 등의 순서이다. 인금법은 궁중예복(35.42%)과 장신구(54.17%)에 많이 사용되었고 직금법은 궁중예복(28.58%)과 평상예복(32.14%)에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불교용품(35.71%)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금사자수법은 생활소품(26.32%)과 장신구(33.33%)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금장식기법은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경우(5.17%)보다는 깃, 쉼, 끝동, 걸마기, 선단 등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경우(94.83%)가 월등하게 많았다.

7. 금장식기법을 사용한 직물 중 금사자수법을 사용한 모직물 5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직물이다. 이 중에서도 인금법이 사용된 직물은 사(紗)가 41.67%로 가장 많았으며, 직금법이 사용된 직물은 직금단(織金緞)이 98.27%로 월등하게 많았고 금사자수법이 사용된 직물은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태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인 단(緞)직물이 73.68%로 월등하게 많았다.

8. 금장식기법은 신분과 부의 상징성, 장식성, 음양사상성과 같은 내적특성을 가진다. 즉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거나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주로 상류계층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심미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장식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장식기법 중 인금법의 경우 음과 양의 색상의 조화로 이루어져 음양사상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숙. (1999). 한국복식 문화사전. 서울:미술문화.
- 石宙善기념박물관. (2004).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복식2천년. 도서출판 신유.
- 임영주. (1983). 한국문화사. 미진사.
- 임영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 민길자. 세계의 직물. 도서출판 한림원.
- 김원용. (1991). 스키타이 황금-스키타이족과 그 미술, 서울:조선일보사, p.292.
-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고대직물 연구소, p. 31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한국의 문양 디자인 II 자수문양. 서울:대원사.
-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앞의 책, pp. 514~516, p. 665, p. 669.
- 趙豐. (2004). 앞의 책, p. 260.
- 包銘新, 趙豐. (1997). 中國織繡. 上海書店出版社, pp. 42~43.
-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권 紡織與鑛冶志. 上海:人民出版社, p. 154.
- 권영숙. (2000).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繡羅香盒囊小考. 월정사 정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학술세미나.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종합연구논문집II.
- 고부자. (2002). 조선시대 피륙(직물)의 무늬.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 남상민. (1999).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우리나라 자수의 변천과 종류-.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복식 2천년. 서울:신유.
-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국의 미. 서울:통천문화사.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名選 中. 단국대학교.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名選 下. 단국대학교.
- 김영숙. (2002). 조선조 후기 궁중 복식 -영왕 복식 중심-. 서울:신유.
-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단국대학교 출판부.
-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83-2002). 한국복식 1호-20호.

- 심연옥. (2002).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고대직물연구소.
-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우리옷이천년. 서울:미술문화.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열화당.
-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5). 국역 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
시스템주식회사, 세종 028 07 04 28(정묘), 성종 276 24 04 27(신유)
-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앞의 책, p. 670.
- 包銘新, 趙豐. (1997). 中國織繡. 上海書店出版社, pp. 42~43.
-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편 紡織與鑛冶志. 上海:人民出版社, p. 154.
- 趙豐. (2004). 遼代絲綢, 香港:沐文堂美術出版社有限公司, p. 260.
-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26.
- 趙評春, 趙鮮姬. (2001). 金代絲織藝術. 北京:科學出版社, p. 73.
-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일지사, p. 304.
- 김영숙. (2002). 조선조후기궁중복식. 서울:신유, p. 119, p. 199~203.
- 권오호. (1996).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서울:교보문고.
- 김용서, 김은정. (2003). 전통복식공예. 신광출판사.
- 류희경, 김문자. (1981).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 안용철 외3명. (1994). 조선의 민속전통2 옷차림. 서울: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 임영주. (1998). 한국전통문양. 서울:예원.
- 하용득. (1997).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명지출판사.
- 심연옥. (1998). 중국역대직물. 도서출판 한림원.
- 조규화. (1997).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 한상수. (1999). 자수장.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백영자. (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도서출판 경춘사.
- 조효순. (1999). 복식. 도서출판:대원사.
- 백영자. (2000).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도서출판 경춘사.
- 백영자. (1998). 한국의 복식. 서울:도서출판 경춘사.
- 김정호, 이미석. (2005).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도서출판:이화.
- 안명숙. (2004). 전통복식공예. 교학연구사.
- 한영화. (1978). 한국의 자수. 삼성출판사.
- 홍윤식. (1998). 불교의식구. 도서출판:대원사.

- 이지은. (2001). 우리나라 宮中服飾에 나타난 金拍紋樣의 작품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정아. (2004). 보문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한국복식학회지:복식, 54권2호, pp.11-23,
- 김선완. (1988). 金箔紋樣을 이용한 作品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1976). 朝鮮王朝時代 金箔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3). 조선시대 전통복식에 사용된 직금직물의 문양 재현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선. (1996). 전통자수의 조형성을 통한 현대자수 작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 (2004). 조선시대 흥배문양을 응용한 자수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4). 청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자수문양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수산. (1979). 조선기 복식 문양(무늬)연구:자수와 금박문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주, 고순희. (2006).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금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 한국복식학회:복식, 56권4호.
- 장현주. (2004).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구름문양의 유형과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2호.
- 신영옥. (1975). 우리나라 직물에 나타난 금박문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진표. (2003). 동판장식기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조선시대 금박 문양을 모티브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민. (1981). 불교자수에 관한 연구:한국불교미술의 새 영역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5). 복식에 활용된 금(Gold)의 미적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산업디자인 전공 의상디자인 세부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현주, 하종경. (2005).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특성. 한국복식학회:복식, 55권5호.
- 강윤숙. (1994). 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학위논문.
- 남수미. (2002). 한국 전통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 지윤영, 이해영. (2002).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이론적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2호.
- 금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탐구. 등재, 14호.
- 강윤숙. (1993).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ABSTRAC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lden Decoration Technique used in the textile of Chosun Dynasty Era

Ko, Soon-Hee

Dep.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Hyun-Joo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ype and property of gold decoration techniques used in textile of Chosun Dynasty era. For techniques decorating dress and its ornament using gold, there are Ingeum method directly expressing gold dust or gold leaf onto surface of textile, Jiggeum method expressing by weaving patterns with gold thread, an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embroidering in various patterns using gold thread.

For study process, types of gold decoration techniques are inquired documentarily to be classified into Ingeum method, Jiggeum method, an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and properties of each method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163 positive relics.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grope for ways to renew understanding on gold decoration that has been symbol of magnificence from ancient society and open a new field on modern dress(fashion) design.

Gold decoration techniques used in textile of Chosun era was classified into Ingeum method, Jiggeum method, an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and results of analyzing each decoration technique's type, period, pattern, usage, textile characteristic, and internal characteristic are as follow.

First, Ingeum is the method expressing pattern on the surface of textile using gold dust and very thin gold leaf with adhesives, and there are Nigeum method and Salgeum method using gold dust, and Cheongeum

method using gold leaf. Jiggeum means layered texture textile magnificently expressing pattern using gold thread separately from warp and weft. According to weaving method, it is divided into Weejoong texture technique expressing pattern using gold thread throughout the textile and partial Weejoong texture technique weaving by using gold thread only on pattern part. Both of these two methods can be classified into method expressing pattern using only gold thread and method expressing pattern using both gold and color threads. Jiggeum is the technique decorating by weaving to complement impractical demerit Ingeum has and strengthen pattern. Gold thread embroidery is the method decorating with embroidery technique using gold thread among secondary decorating techniques to express pattern after weaving textile, and it is divided into Gold thread Ging Geumsoo method expressing contour of pattern or most of the pattern using gold thread and fixing with color thread, and Gold thread Ging Geumsoo method + Saksa Pyeongsoo method filling inner of pattern with satin embroidery method and using gold thread only on contour part.

Second, for typical and periodical advent percentage among properties of gold decoration techniques, Jiggeum method is the highest(35.58%), followed by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34.97%) and Ingeum method(29.45%).

Third, for pattern on textile relics used of gold decoration techniques, portion of compound type using combination of two to three different patterns is far higher than single type using one pattern, and many of these patterns have mixed animal patterns and nature patterns. In all Ingeum method, Jiggeum metho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portion of compound type(73.62%) was higher than that of single type(26.38%). This seems intention to communicate various symbolisms by implication by using diverse kinds of patterns rather than single pattern.

Fourth, as the social standing that can decorate gold onto clothing was limited to noble class, its usage can be said to be very limited. Gold decoration techniques was mainly used in court suit, ordinary suit, etc(33.74%), followed by ornaments(28.84%), clothing article(15.95%), Buddhist article(12.27%), living article(9.20%), etc. Ingeum method was

largely used in court suit(35.42%) and ornaments(54.17%), Jiggeum method was largely used in court suit(28.58%) and ordinary suit(32.14%) in similar portions, and used relatively largely in Buddhist article(35.71%).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was used in clothing article(40.35%), ornaments(33.33%) and living article(26.32%) in similar portions, an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cannot be found in clothing kind of court suit and ordinary suit. In addition, these gold decoration techniques were by far used in parts of clothing(94.83%) such as collar, gore, cuff, lining, hem, etc rather than the whole of clothing(5.17%).

Fifth, among textiles used gold decoration method, all of them were silk fabrics except 5 woolen fabrics used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Among these, gauze(thin silk) was largely used in textiles using Ingeum method, taking portion of 41.67%, Jiggeum silk was used in 98.27% of textiles using Jiggeum method, taking largest portion, and for textile used of Gold thread embroidery method, silk, material than can express complex and luxurious figures was largely used, taking 73.68%.

Lastly, gold decoration techniques have inner properties such as symbolism of social standing and wealth, ornamentation, and Yin-Yang thought. In other words, they were mainly used in upper class as they were recognized as means to symbolize social standing or economical wealth, and have ornamentation nature as they have aesthetic effect to display beautifully. Also, by stressing or decorating specific part with gold on dress and its ornament, marked individuality and beauty could be expressed. Ingeum method among these gold decoration techniques, was formed in harmony of Ying and Yang's colors, can be said to possess Ying-Yang thought in it.

감사의 글

본 논문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논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상하고 아낌없는 배려로 늘 제 옆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장현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를 맡아 세심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권영숙 교수님, 이주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혜선 교수님, 권숙희 교수님, 장애란 교수님, 홍희숙 교수님, 이은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활기찬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많은 대학원 선배님들과 동기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내가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나의 따뜻한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크신 이해와 배려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시댁부모님,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친정부모님,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오빠, 언니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늘 내 옆에서 용기와 가르침을 주는 남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결실로나마 제 곁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6년 12월
고순희 드림